

학교체육에서 티볼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채규민 · 우승호* · 조용인 (중앙대학교)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Teeball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Chae Gyu-Min · Woo Seung-Ho · Cho Yong-In (Chung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체육에서 티볼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티볼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티볼협회는 1998년 창립 이후 국민생활체육 전국티볼연합회 결성을 통해 생활체육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재 취임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며 티볼 보급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기업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통해 초등학교 티볼대회, 여자중학생·여자대학생 티볼대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등을 개최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초·중등 교원강습회를 통해 학교체육에 적극 진입함으로써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backgrounds of the introduction for Teeball in Korean physical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Teeball in now school physical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be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eeball tried to enter into sports for all through an establishment of national Teeball alliance in Korea Sports for All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n Teeball association in 1998; Second, it was a turning point that a former President Kim Young-Sam was appointed as a president of Korean Teeball association. After then, vary projects for the spread of Teeball were promoted, for insta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eball competition, girls'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competition, and national education universities' Teeball competition through financial sponsorship from general company and national sports promotion corporation. In addition, Teeball was introduced into school physical education via classe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Plus, Teeball was chosen as a regular sporting event in the National School Sports Club and became a popular sport.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67020).

Key words: Teeball, school physical education, Korean Teeball association, Teeball competition

* woowa007@hanmail.net

I. 서론

체육교과는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실 학교체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운동 종목을 경험하게 하여 자신이 즐겨 하는 종목을 평생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로 선택 생활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안제현, 2006).

그러나 이러한 체육교과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으로 즐겁게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교사중심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 미흡한 체육시설 및 기구,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등의 요인으로 학교체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었다(신민경, 2012). 또한 개인의 흥미, 운동능력,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시킴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수준의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학습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안제현, 2006).

우리 사회는 1990년대를 지나며 체육 또는 스포츠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 변화 중의 하나로 뉴스포츠(New sports)라 불리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의 영역으로까지 파고들었다.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 농구 등은 경기를 하기 위한 기술 습득이나 경기규칙의 숙지가 필요하나, 족구, 티볼, 넷볼 등의 뉴스포츠는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고, 룰이 쉬워 경기를 쉽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참가대상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참가자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로컬룰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뉴스포츠는 “경기력, 체력,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를 말하는 것이다(서상욱, 2006: 57).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 학교현장에서는 체육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지능력과 인성함양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더불어, 그동안 학교체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즉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평등적 체육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참여방법 개선 등이 사회문화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며 혼성학급이 일반화 되었고, 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적은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나면서 성별에 보다 합리적인 방식의 체육수업의 개념이 대두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서 티볼, 넷볼 등의 뉴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유정애, 김윤희, 2002: 6).

우리나라에서 뉴스포츠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라 알려져 있다(류태호, 이병준, 2006; 류태호, 2006; 서상욱, 2000). 거의 동일한 시기에 국가적으로 생활체육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는 한편,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체육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졌다. 특히 학교체육은 열악한 교육시설과 전통적 교육풍토의 만연,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체육수업 시간의 단축, 혼성학급 등으로 인한 체육의 효과성과 교육적 중요성이 등한 시되는 문제를 보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체육교육의 퇴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때, 마침 뉴스포츠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스포츠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많은 생활체육 관계

자와 체육교사들에 의해 뉴스포츠는 새로운 대안으로 교육적 공감대를 얻어 2007년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인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현재는 많은 대학의 체육관련 전공강좌 및 교양과목으로 뉴스포츠 종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교과 중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구기 종목이 뉴스포츠나 스포츠댄스 등의 신체표현활동 중심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뉴스포츠는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던 기존 체육교과 교육을 보완하며 빠르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류태호, 이규일, 2009: 48).

안제현(2006)은 뉴스포츠 체육수업은 수업의 소재를 다양하게 해주고, 경기에 참여토록 하여 사회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기회를 늘려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의 수용과 다양한 운동 능력에 맞는 수업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석인·김대한·박수현(2011)의 연구에서는 뉴스포츠의 체육수업 적용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참된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하다고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체육교육 현장에서도 기존의 근대스포츠 종목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뉴스포츠 종목인 풋살, 넷볼, 게이트볼, 티볼, 플라잉디스크 등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확산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뉴스포츠 종목 수의 증가는 물론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서도 뉴스포츠 관련 강좌가 신설되고 교육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류태호·이병준, 2006: 70).

이렇듯 새로운 스포츠의 변화와 발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뉴스포츠가 갖는 의미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티볼은 넷볼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입된 뉴스포츠 대표 종목이며 동시에 학교체육에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도입된 종목으로 볼 수 있다. 티볼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 전통적 학교체육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서 뉴스포츠에 내재된 가치를 인정받아 학교체육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내용으로 편성되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학교체육에서 뉴스포츠 대표종목으로 티볼의 도입에 관한 연구는 임석원 등(2013)의 '뉴스포츠 종목 티볼의 기원과 한국 도입에 관한 연구'와 류태호와 이병준(2006)의 '뉴스포츠의 개념과 도입에 관한 연구' 외에는 미미한 실정이며 더불어, 도입 이후 학교체육으로 활성화되기까지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체육에서 티볼이 어떻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자료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학교체육에서 티볼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이며, 주된 자료로 뉴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신문기사, 한국티볼협회 간행물 등을 통해 학교체육에서 티볼의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티볼협회의 창립, 한국티볼협회의 활동, 학교체육 도입 및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한국티볼협회 관계자 및 체육교육과정 전문가와의 면담·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티볼의 학교체육으로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학교체육 종목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 . 한국티볼협회의 창립

티볼의 한국 도입과정에서는 1998년도 서상옥이 일본체육대학 한국 동문 체육대회에서 선보인 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석원, 김대한, 이병원, 서상옥, 2013: 259). 도입과정의 외면적인 모습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뉴스포츠 도입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류태호, 2006). 현재 사단법인 한국뉴스포츠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상옥은 일본에서 경험한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들 중 티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조직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서상옥은 1998년 10월 손환(중앙대학교 교수), 조정환(서울여자대학 교수) 등 일본체육대학 동문회 및 중앙대학교 동문을 중심으로 한국티볼협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사업가인 김홍겸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게 된다. 초기에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의 동시 진입을 시도하며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가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 한국티볼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티볼연합회

한국티볼협회는 창립 이후 생활체육 동호회 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티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일본 티볼협회 초급 지도자 강습회에 서상옥, 박철호가 참석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본격적인 국내 보급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표 1>은 한국티볼협회 및 국민생활체육 전국티볼연합회 역대 회장과 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한국티볼협회 및 국민생활체육 전국티볼연합회 연혁

연도	연혁
1998.10	한국티볼협회 창립 생활체육티볼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일본 티볼협회 초급지도자 자격연수 (일본방문) 제1대 김홍겸 회장 취임
1999.02	티볼 입문서 발간
2001.1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티볼용구보급 사업 (전국 500여 보호시설) 제2대 조정환 회장 취임
2002.11	대교 아인슈타인배 어린이 티볼대회 개최 (목동야구장)
2004.0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정단체 등록 (전국티볼연합회)
2005.06.12	전국 교원 티볼강습회(문학야구장) KBO총재배 초등학교티볼대회(잠실야구장)
2006.05.06-11	티볼 지도서 발간 초중등교원 티볼강습회 개최 (서울, 인천, 광주, 전남, 충북 1000여명)
2007.05-11	초중등교원 티볼강습회 개최 (서울, 경북, 강원도, 부산) 제1회 KBO총재배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잠실야구장)
2008.05	김영삼 전 대통령 총재 취임

자료출처 : 한국티볼협회

<표 1>과 같이 1998년부터 협회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2001년 제2대 조정환 회장이 취임하고, 전국 500여 보호시설에 티볼용구를 보급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티볼용구 보급사업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티볼협회가 제 모습을 갖추기 전, 학습지 회사인 대교의 후원으로 2002년 11월 대교 아인슈타인배 어린이 티볼대회를 목동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학생 티볼대회로 여겨진다(한국티볼협회 연혁, 2018).

2004년 전국티볼연합회가 국민생활체육체육협의회 인정단체로 등록되어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티볼 보급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

었다. 2005년 6월에는 KBO의 후원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중등 교원 티볼강습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2007년까지 강습회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잠실야구장에서 KBO 총재배 초등학교 티볼대회를 개최하게 된다(서상옥 인터뷰, 2018년 1월 21일).

1999년 한국티볼협회에서는 일본 자료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티볼 입문서를 발간하게 되고, 2006년 그 내용을 보완하여 티볼지도서를 출간하였다. 종전의 티볼 입문서는 기본적인 티볼의 용구 소개, 경기장 구성, 기본 규칙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새롭게 발간한 티볼지도서에는 티볼의 역사와 유래, 공격과 수비의 기본기술, 지도법의 내용을 추가하여 현장의 교사나 지도자들이 쉽게 익히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2. 김영삼 전 대통령 한국티볼협회 총재 취임

한국티볼협회는 2008년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한국티볼 발전에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게 된다. 그것은 바로 어느 체육단체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총재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티볼협회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조정환(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김영삼 전 대통령 총재 취임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었다.

일단 협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 확산과 보급을 더 이렇게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던 중에 그동안 계속 일본하고 교류를 해왔었고 그때 당시에 일본에는 총재 이름의 그런 직책

을 가이후 전 수상이 하고 있었고 미국은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서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회장을 맡았지만 조금 더 확산하고 하기 위해서는 티볼협회 실무적인 회장 말고 총재라는 직함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모셔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서상옥, 박철호 두 분이 이런 개인적인 이제 인맥들을 통해서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실무자분들을 만나서 요청을 드리고 사전에 이제 검토를 받고 실무적으로 아 이거는 뭐 한번 전 대통령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일단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일본 티볼협회 회장을 와세다대학의 요시무라 교수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티볼협회 총재는 가이후 전 수상이지만 그래서 요시무라교수가 동행을 해서 같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 뵈고 다들 이제 나만 빼놓고 일본말들이 되시는 분들이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요시무라 일본교수와 일어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대통령께서 그때 내가 맡아줄게 이걸 역시 일본말로 나만 늦게 알아듣고 이제 다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일이 벌어 진거죠(조정환 인터뷰, 2018년 3월 17일).

이처럼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티볼이라는 소규모 체육단체의 총재로 전직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의 가이후 전 수상이 일본티볼협회 총재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티볼협회 총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국티볼협회 총재취임과 맞물려 당시 인터넷 게임업체인 애니파크에서 ‘마구마구’라는 온라인 야구게임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의 지원 사업을 모색하던 중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소개로 티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하게 된다. 이에 힘입어 한국티볼협회는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개최하게 된다.



그림 1. 2008년도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 개최식 시타장면
자료출처 : 뉴스시스 v.media.daum.net

위 사진은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 개최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타 장면의 신문기사 내용이다. 처음 시타는 헛스윙을 하며 다소 멋쩍은 웃음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공을 주워 올리려는 조정환 당시 한국티볼협회장이 함께 있는 사진 속 둘의 모습은 상당히 유쾌해 보인다. 이렇듯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티볼협회 총재로서 대회가 열리는 운동장까지 직접 방문하여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시타와 사인볼 선물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전직 대통령이 티볼이라는 생소한 체육단체의 총재직을 수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배경을 조정환 전 회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배경은 한일 간에 일본의 미국의 이제 티볼협회를 맡고 계셨던 분들이 전직 수상 전직 대통령에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제의를 하기가 가능했고 또 YS계서도 수락하기도 아 그러면 그렇게 모양새도 나쁘지 않겠다. 아무리 처음에 전직 대통령께서 이걸 뭐 대한축구협회도 아니고 KBO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아주 참 보잘것없는 그런 협회인데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경남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경남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던 학교고 옛날에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야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야구를 보고 즐기고 또 이렇게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티볼을 아주 잘 이해를 하시고 좋은 시각으로 티볼을 이야기를 들은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이분이 야구를 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 야구부도 만들어가고 활동한 그런 이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티볼협회를 이렇게 맡아주시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예요. 아주 김영삼 대통령 개인의 미시사라고 그러지 미시사. 그런 게 이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요. 아주 의미 있는 그 역사적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력이요(조정환 인터뷰, 2018년 3월 17일).

이처럼 한국티볼협회는 전직 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티볼의 보급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후 총재배 초등학생 티볼대회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년에 봄, 가을로 2회씩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정기적인 대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결성된 아시아티볼연맹이 주최하는 아시아티볼대회에 총재배 초등학생 티볼대회의 우승팀을 한국대표팀으로 파견하여 국제무대에서 티볼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2008년부터 제1회 여자중학생 티볼대회, 제1회 여자대학생 티볼대회를 개최하며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학생 체육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Ⅲ. 한국티볼협회의 활동

1. 정기적 티볼대회의 개최

2008년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각종 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한다. 종전의 한국티볼협회 주최의 티볼대회는 지속적인 후원이 추진되지 못하여 일회성이벤트로 개최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재 취임 이후, 한국티볼협회는 애니파크의 후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체육분야 기금지원사업의 자금 후원에 힘입어 보다 다양한 대회를 추진하며 보급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



그림 2.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 팸플릿
자료출처: 한국티볼협회

<그림 2>는 정기적인 초등학생 티볼대회의 시초가 되는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 팸플릿이며 이 대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또한, 국제교류 차원에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본 전국소학교티볼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팀을 파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애니파크의 예산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표 2. 한국티볼협회 각종 티볼대회 및 중요 행사

연도	각종 티볼대회 및 중요 행사
2008	체육교과교육과정 도입
06	제1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 (인천 문학야구장)
08	제11회 일본 전국소학교티볼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파견(일본 동경 세이부돔구장)
09	제2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 (인천 문학야구장)
10	제1회 한국티볼협회총재배 전국여자중학생 티볼대회 (인천 문학야구장)
11	제1회 한국뉴스포츠협회총재배 전국여자대학생 티볼대회(서울 신월야구장)
11	제2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서울교육대학교)
2009.	초중등 교원 티볼강습회
05-11	서울,제주,강원, 전북, 경기
05	제3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
08	제12회 일본 전국소학교 티볼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파견 (일본 도쿄로자와 세이부돔구장)
09	제4회 한국티볼협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10	제2회 한국티볼협회 전국 여자중학생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10	제2회 한국티볼협회 전국 여자대학생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11	제3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서울교육대학교)
2010.	아시아티볼연맹 창립
01	(일본, 중국, 대만, 한국대표단)
08	제1회 아시아 티볼선수권대회
02-12	티볼 2급지도자/심판 연수회(자격발급)
06-11	초중등 교원티볼강습회 전남,부산,대전,경기,서울
05-11	제5회, 제6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제3회 전국 여자중학생, 여자대학생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제4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부산 사직야구장)

자료출처 : 한국티볼협회

애니파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을 한국티볼협회에 후원함으로써 다양한 티볼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국티볼협회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참가하는 아시아 티볼연맹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티볼대회에 한국팀을 파견할 수 있었다. 2011년과 2014년에는 한국에서 제2회, 제5회 아시아티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 3. 한국티볼협회 각종 티볼대회 및 중요 행사(계속)

연도	각종 티볼대회 및 중요 행사
2011 01 04	아시아티볼연맹 정기총회 참석 (일본, 중국, 대만, 한국대표단) 제2회 아시아 티볼선수권대회-한국개최 티볼 2급지도자/심판 연수회(자격발급) 서울, 경기도 특수학교 교원티볼강습회
06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광주 무등야구장)
05-11	제7회, 제8회 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서울 목동야구장, 목동주경기장) 제4회 전국 여자중학생, 여자대학생 티볼대회(서울 목동주경기장)
2012.01	한국티볼협회 사단법인 승인 제3대 김종인 회장 취임
07	제3회 아시아 티볼선수권대회-대만
03-11	티볼 2급지도자/심판 연수회(자격발급) 서울, 경기도 특수학교 교원티볼강습회
06	제6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춘천 의암야구장)
09	제9회 한국티볼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서울 목동주경기장)
10	제5회 전국 여자중학생 티볼대회 (송곡여자중학교)
11	제5회 전국 여자대학생 티볼대회 (과주스타디움)
11	제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배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대구 울하체육공원)
2013. 05	티볼 2급지도자/심판 연수회(자격발급) 제7회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06	제10회 협회장배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여주대학교)
11	제6회 전국 여자대학생 티볼대회 (부산 동서대학교) 제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광주 조선대학교)

자료출처 : 한국티볼협회

특히,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는 매년 봄, 가을로 1년에 2회의 대회가 개최되었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티볼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을 통해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대회가 개최되었고, 특히 2015년부터는 열린국회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대회가 치러지며 다시 한번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여자중학생, 여자대학생 티볼대회는 학교체육에서 소외된 여학생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여중대회는 제5회 대회를 끝으로, 여자대학생대회는 제6회 대회를 끝으로 명맥을 유지 하지 못하였다.

2007년에는 KBO의 후원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전국 초중등 교원 교사강습회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될 전국 초등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한국티볼협회는 티볼이 야구의 씨앗임을 강조하며 티볼을 통해 새로운 야구팬들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것을 주도할 초등학교의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KBO에 제안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되었다.

표 4.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 참가팀 및 자매구단

학교명	자매구단	학교명	자매구단
공주교대	한화 이글스	경인교대	SK 와이번스
청주교대	한화 이글스	경인교대	KT WIZ
부산교대	롯데 자이언츠	춘천교대	넥센 히어로즈
진주교대	NC 다이노스	전주교대	KIA 타이거즈
서울교대	두산 베어스	광주교대	KIA 타이거즈
서울교대	LG 트윈스	대구교대	삼성 라이온즈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는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별로 지역 연고 프로야구팀을 대표하여 팀을 편성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프로야구경기장에서 대회가 치러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초중등 교원 티볼강습회

티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 중 학교체육의 진입을 위해 초등·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티볼강습회는 2005년 KBO의 후원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나, 점차 사업의 효과를 인식한 실무진의 노력으로 전국규모로 확대 진행되었다.



그림 3. 2006년 초중등 교원 티볼강습회
자료출처 : 한국티볼협회

특히 2008년부터 애니파크의 후원으로 매년 전국 5개 지역에 약 500여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습회가 진행되었고 500세트의 티볼용구가 지급되어 급속도로 티볼 보급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교원강습회가 진행되어 전국 각지에 용구보급 및 티볼을 보급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서상욱 인터뷰, 2018년 1월 21일). 이를 토대로 학교에 교사를 중심으로 티볼이 점차 확산되어 갔고, 체육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이후 학

교스포츠클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인기 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3. 티볼 지도자 및 심판 양성

2005년부터 시작한 초중등 티볼강습회를 바탕으로 티볼이 점차 확산되어 가며 학교 현장에서 티볼 지도 역량을 검증할 만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티볼협회에서는 2010년 처음으로 티볼 2급 지도자 및 심판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고 티볼지도자 및 심판 양성을 추진하였다(서상욱 인터뷰, 2018년 1월 21일). 이후 2012년 한국티볼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후 한국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취득한 후 티볼지도자와 티볼 심판을 분리하여 양성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2012년부터 시작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에 공정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티볼 심판 자격을 취득한 경력자들을 모집하여 티볼 1급 지도자 취득을 겸한 심판 워크숍을 개최하며 현장경험 중심의 티볼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양성된 티볼 2급 지도자는 약 5,500여명, 티볼 2급 심판은 약 360여명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이 쉽게 익혀 활용할 수 있는 티볼지도서 및 티볼 심판 교본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새롭게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한국티볼협회 연혁, 2018).

IV. 학교체육의 티볼

한국티볼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계 임산업을 주도하는 애니파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재정후원을 통해 다양한 티볼 보급 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체육의 진입을 위해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티볼 강습회를 개최하였다(서상욱 인터뷰, 2018년 1월 21일). 먼저 남녀 혼성팀만이 참가는 초등학교 티볼대회를 개최하고 초등학교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주도하였다. 초등·중등 교원 티볼강습회는 강습회가 개최되는 해당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초중등 교사들을 모집하였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야구를 바탕으로 하는 티볼의 기본기술을 전수하여, 지도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티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강습회 이후 실제 학교에서 티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 교사 1인당 티볼 1세트를 무상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티볼 활성화를 도모했다.

1. 학교 체육교육과정 도입

한국티볼협회는 교원티볼강습회와 각종 티볼대회를 통해 티볼 보급을 추진한 결과 2007개정 교육과정에 초등 및 중등 체육교과에 티볼을 포함한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이 도입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티볼을 비롯한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들이 수록되면서 학교의 체육교과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체육수업시간에 티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2007 체육교육과정 개정을 주도한 유정에(중앙대학교 교수, 2007년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체육과 연구원)는 티볼의 교육과정 도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 하는데 그때 연구책임자였습니다. 그 당시 2007 개정교육과정 전이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7차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 순서는 정확하지 않는데 육상, 체

조, 수영, 개인운동 및 단체운동, 체력, 보건, 무용 8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뉴스포츠가 없었는데 뉴스포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그 지금 열거한 스포츠 이외에는 어떤 스포츠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기존의 스포츠도 좋지만 만약에 다른 스포츠를 하고자 할 때는 학교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가 법적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포츠만 부단 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분위기가 많은 학생들이 체육교육을 받는 이유는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을 배워서 그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건강권 혹은 체육에 대한 즐거움 흥미 이런걸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농구, 배구 하기 싫어하거나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걸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니까 필수라는 이름으로 해서 너무나 강제적인 그 스포츠, 그 스포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스포츠들이 너무나 제약이 많고 배우기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학생이나 운동기능이 낮은 아이들은 기존의 스포츠, 전통스포츠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또 학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보면 기존에 아까 열거한 스포츠들이 시설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체조, 육상, 수영 아까 말한 개인 및 단체 운동 보면 농구, 축구, 배구 이리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선생님도 계시고 운동장도 없고 농구코트도 없는데 그걸 하라는 건 무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뉴스포츠만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기존 스포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스포츠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제 교육과정에 내용체계라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뉴스포츠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거죠.(유정에 인터뷰, 2018년 3월 21일).

이처럼 뉴스포츠는 2004년부터 학생들의 건강권과 흥미를 고려한 학교체육교육과정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내용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티볼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정환(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은 학교체육에서 티볼이 도입되고 나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체육에 티볼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보통 학교교육과정에 있는 경쟁활동, 도전활동, 표현, 이런 체육과 영역의 활동들이 전통적인 스포츠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모두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티볼이나 이런 뉴스포츠형의 활동이 소개되고 나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과정이나 이런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수준에 맞는 그런 체육교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이 체육교육에 교육의 효과를 거대할 수 있는 좋은 교재도구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조정환 인터뷰, 2018년 3월 17일).

티볼은 야구형 뉴스포츠로 종전에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움직이는 공을 쳐내야 하는 어려운 종목으로 인식되었던 야구의 단점을 개량하면서 운동기능수준이 높지 않은 참여자에게 야구형 종목의 장점을 살린 매력적인 종목으로 인식되며 학교체육의 한 복판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2.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2012년부터 티볼을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면서 티볼이 뉴스포츠 종목들 중 학교스포츠클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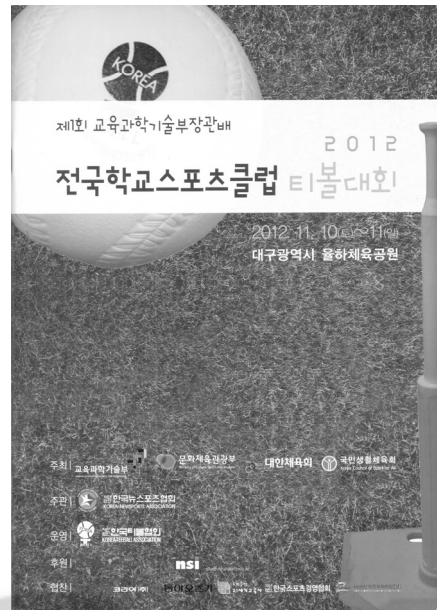


그림 4. 제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자료출처 : 한국티볼협회

<그림 4>는 처음으로 티볼이 정식종목으로 도입되어 한국티볼협회가 주관단체로 운영한 2012년 제1회 교육과학기술포럼배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 팜플렛이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는 2012년부터 매년 초등 혼성부, 남녀 중등부, 여자고등부 총 4개 부문에 걸쳐 전국 약 60여개 시도대표팀이 참가하여 티볼을 통한 학교체육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티볼은 전통적인 학교체육 종목인 야구, 배구, 핸드볼보다도 전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들 순위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당한 인기 종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도 대회부터는 초등혼성부를 남녀부문으로 구분하여 초등남녀, 중등남녀, 여고부 총 5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처음으로 시작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티볼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팀들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

표 5.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현황(2014. 12. 31기준)

순위	종목	클럽수				17시간 이상 등록 학생 수			
		전체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194,684	110,808	50,290	33,586	3,787,401	2,307,483	964,869	515,049
1	줄넘기	56,713	49,504	4,566	2,643	1,332,647	1,145,810	130,884	55,937
2	축구	23,151	5,309	11,561	6,281	359,373	84,822	192,519	82,032
3	걸기	18,386	12,820	2,507	3,059	499,027	305,811	108,302	84,865
4	피구	17,840	7,833	6,864	3,143	293,515	150,247	106,254	37,014
5	배드민턴	12,597	4,392	4,293	3,912	215,296	81,603	75,928	57,765
6	농구	9,712	1,500	4,425	3,787	123,171	23,320	64,512	35,339
7	육상	6,340	5,841	379	120	138,806	126,556	10,345	1,902
8	탁구	5,462	1,421	2,444	1,597	66,017	17,710	32,820	15,487
9	티볼	3,556	2,477	784	295	63,411	45,729	14,501	3,181
10	익스트림게임	3,403	2,078	985	340	68,927	41,760	19,291	7,876
11	맨손체조	3,303	2,559	514	230	93,579	63,764	17,730	12,085
12	풋살	2,899	954	1,162	783	39,462	12,188	18,503	8,771
13	발야구	2,130	677	848	605	29,617	12,454	11,231	5,932
14	방송댄스	1,882	816	787	279	33,463	14,964	14,753	3,746
15	배구	1,595	497	592	506	25,711	8,924	10,522	6,265
16	플라잉디스크	1,592	1,014	398	180	25,230	16,314	6,856	2,060

자료출처 : 교육부(2015).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계획.

이며 학교체육에서 매우 인기 있는 종목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뉴스포츠 종목들이 가지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티볼은 매우 참여지향적인 스포츠이다. 티볼은 야구와 유사하지만 배트와 공 등 용구를 개량하여 야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기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운동기능수준이 높지 않은 참여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규칙을 변형함으로써 초등의 경우 남녀혼성팀의 경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서상욱 인터뷰, 2018년 1월 21일). 이처럼 한국티볼협회에서는 학교체육에 진입하기까지 다양한 노력들로 결실을 맺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티볼은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 중 가장 먼저 도입된 대표종목으로, 체육교과과정에도 포함된 인기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체육에서 티볼이 어떻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선행연구, 신문기사, 한국티볼협회 간행물 등의 자료를 정리, 분석했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티볼협회는 1998년 일본 유학 시절 티볼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서상욱의 주도로 중앙대학교 동문과 일본체육대학 한국동문 등을 중심으로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생활협의회에 인정단체로 등록되며 생활체육에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05년 초중등 교원 티볼강습

회와 KBO 총재배 초등학교 티볼대회를 시작으로 학교체육으로 티볼 보급 사업을 주도하였다. 특히 200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티볼협회 총재로 취임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며 티볼 활성화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티볼협회는 200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재 취임 이후 일반기업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전국초등학생 티볼대회, 여자중학생 티볼대회, 여자대학생 티볼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며 1년에 약 500여명의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티볼강습회를 실시하고 참가교사에게 티볼 1세트씩을 기증함으로써 지속적인 티볼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으로 결성된 아시아 티볼연맹을 출범시켰으며 한국대표팀을 아시아 티볼대회에 파견하여 티볼을 통한 국제 친선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티볼이 야구의 씨앗으로 활용되어 프로 야구의 잠재고객 발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는 초등예비교사들에게 티볼을 알림으로써 점차 학교체육에서 티볼을 통한 프로야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교육대학교 티볼대회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교원티볼강습회 및 각종 티볼대회 개최를 바탕으로 학교 체육교육과정에 티볼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티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2012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지정되며 점차 학교체육에서 인기종목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었다.

티볼은 전직 대통령이 한국티볼협회 총재로 취임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티볼을 알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KBO 및 일반기업 등의 후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정기적인 티볼대회와 교사강습회 등을 주도하며 티볼을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 결국 새

로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티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체육에서 그 필요성을 확산 시킬 수 있었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학교체육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티볼이 한국에 도입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학교체육에 도입되어 활성화 되는 과정을 파악했다. 향후 후속연구와 학제 간 융합연구 등을 통해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그리고 스포츠산업으로서 티볼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대만의 티볼의 경기 규칙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칙 통일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제2015-75호.
교육부(2015).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계획.
뉴스시스 V.media.daum.net / 2008년 6월 7일
류태호·이규일(2009). 좋은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세 교사의 수업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2(2).
류태호·이병준(2006). 뉴스포츠(New Sports)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1).
류태호(2006). **뉴스포츠의 이해와 실천**. 서울: 무지개사.
서상욱(2006). 야구형 뉴스포츠, 티볼 Teeball. **스포츠과학**, 95.

- 서상옥 인터뷰. 2018년 01월 21일. 한국티볼협회 사무실.
- 안제현(2006). **뉴스포츠 체육수업 경험 유·무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 만족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정애·김윤희(2002). 양성평등 체육교육의 한계, 현실 및 도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3).
- 이병준(2006). 15년의 수업기रो과 그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대회**.
- 유정애 인터뷰. 2018년 03월 21일, 중앙대학교 연구실.
- 이석인·김대한·박수현(2011). 뉴스포츠 수업이 초등학생의 기초체력과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9(1).
- 임석원·김대한·이병원·서상옥(2013). 뉴스포츠 종목 티볼의 기원과 한국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1(4).
- 조정환 인터뷰. 2018년 03월 17일. 중앙대학교.
- 한국뉴스포츠협회(2015). **뉴스포츠의 이해**.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2000). **레크리에이션 지도서**. 서울: 대경북스.
- 한국티볼협회(1999). **티볼 입문서**. 서울: 한국티볼협회.
- 한국티볼협회(2006). **티볼 지도서**.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08). **제1회 한국티볼협회총재배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 팜플렛**. 서울: 한국티볼협회.
- 한국티볼협회(2008). **제1회 한국티볼협회장배 전국여자중학생 티볼대회 팜플렛**. 서울: 한국티볼협회.
- 한국티볼협회(2008). **제1회 한국뉴스포츠협회장배 전국여자대학생 티볼대회 팜플렛**. 서울: 한국티볼협회.
- 한국티볼협회(2009). **티볼 활동 및 지도방법**.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10). **티볼 지도서 개정판**.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11). **티볼입문서 신개정판**.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12). **제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배 전국학교스포츠클럽티볼대회 팜플렛**. 서울: 한국티볼협회.
- 한국티볼협회(2015). **티볼 심판 교본**.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17). **뉴스포츠 시리즈 ①티볼 지도서**. 서울: 21세기교육사.
- 한국티볼협회(2018). **한국티볼협회 연혁**. 한국티볼협회.
- 황의룡(2014). 한국의 뉴스포츠 도입과 전개 과정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4).
- 논문투고일: 2018년 05월 22일
 심사완료일: 2018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6일